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보고서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보고서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보고서

2014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ven Summits(Kosciuszko) Expedition



주 최 _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주 관 _ 용봉인 산악회 연합

(전남대학교 산악회,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 서울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전남대학교 교직원산악회, 전남대학교병원 산악회,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후 원 _ 용현회, 광주은행, 전남대서울동창회, 에덴병원, (주)민코코리아

새천년종합건설(주), 디스커버리용봉점, 전남대출판부, (주)지오투정보기술

전남대학교 개교 62주년, 총동창회 창립 58주년 기념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 개교 62주년, 총동창회 창립 58주년 기념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보고서



목 차 Contents

원정화보	4	제2장 원정개요	
		· 2-1. 원정결과	29
		· 2-2. 운행결과	30
		· 2-3. 원정대원	31
		· 2-4. 코시어스코 개요	33
		· 2-5. 등반루트	37
인사말		제3장 운행기록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13	3-1. 전체운행기록	41
· 전남대학교 총장	14		
· 원정단장	15	3-2. 대원별 등반기	52
· 원정대장	16		
제1장 원정추진 및 준비		제4장 분야별 보고	
·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19	4-1. 행정	65
· 1-2. 훈련일지	20	4-2. 회계	73
· 1-3. 발대식	25	4-3. 준비물(장비 및 식량)	76
		편집후기	80

원정화보



코시어스코 정상(2,228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깃발과 함께



정상에 선 전남대학교 산악회 깃발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깃발과 함께

원정과정 사진

- 원정 1일(광주종합버스터미널-인천공항-시드니)



광주터미널에 환송 나온 산악회원들과



인천공항 출국 전

- 원정 2일(시드니-캔버라-트레드보마을)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



우리를 트레드보마을까지 싣고 간 미니버스와 트레일러

● 원정 3일(정상 등정)



정상 등정 날 분주한 등반 준비



코시어스코 등반 중



최희동 단장



정상에서 태극기와 함께

- 원정 4일(트레드보마을-캔버라-시드니)



우리를 캔버라까지 싣고 간 미니버스와 트레일러



시드니 호텔에 도착하여 자축연

- 원정 5일(시드니관광)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에서



하버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

- 원정 6일(시드니-시드니공항-인천공항)



시드니공항의 기념품가게



시드니공항 창문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비행기

용봉인의 기상을 드높이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대의 호주 코시어스코 정상등정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주의 겨울산행을 등반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텐데 무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하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원정대는 1996년부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에베레스트, 남미의 아콩카구아, 북미의 데날리, 유럽의 엘브루즈, 그리고 이번 코시어스코를 등정하고 이제 마지막 남극의 빈슨매시프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원정대가 용봉인들의 도전정신과 기개를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병문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마다 않고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코시어스코 원정등반은 이런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겸손함과 진정한 용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용봉인의 기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을 후학들에게 용봉인의 도전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굳은 의지를 품고 전진하는 용봉인의 참모습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으로 걸어 온 세계7대륙 등반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 이제 9부 능선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2016년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 등정의 영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봉인의 기개와 용기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만 동문들은 여러분의 뒤에서 언제나 뜻을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명의 부상자나 낙오자 없이 무사히 귀환한 코시어스코 원정대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의 도전정신을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치하하는 바입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허 정

축 사



전남대학교 산악인들의 ‘2014년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 성공을 축하합니다. 지난 여름 발대식에서 했던 약속대로 다섯 분의 대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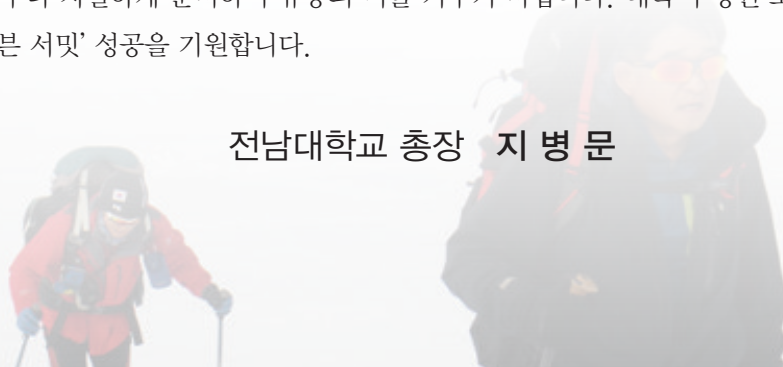
호주의 코시어스코가 세계 7대륙 최고봉 중 가장 낮다고는 하지만 겨울 등반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불굴의 도전정신과 치밀한 사전준비가 없었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발대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봉 산악인 여러분의 도전은 전남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글로벌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듯, 여러분은 끝없는 도전으로 용봉인의 기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정복하는 7대륙 최고봉 하나하나에 전남대학교의 자랑스런 역사가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7대륙 최고봉 중 6개를 정복하였습니다. 1996년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에베레스트, 남미의 아콩카구아, 북미의 데날리, 유럽의 엘브루즈, 오세아니아의 코시어스코까지 차례로 올랐습니다. 이제 2016년 남극대륙의 빈슨매시프만 오르면 꿈의 ‘세븐 서밋(Seven Summits)’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등정은 지금까지 올랐던 6개의 봉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세븐 서밋’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지 병 문



코시어스코 등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세계7대륙 최고봉(호주 코시어스코) 원정대가 정상을 등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원정을 위해 애써주신 허정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후원과 염려 덕분에 생각합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용봉인들의 세계 7대륙 최고봉 도전은 이제 남극의 빈슨매시프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200여명만이 7대륙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며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용봉인들은 서두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에 임했고, 집념을 발휘하여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최종 목적지의 문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시어스코는 어렵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했던 칼스텐츠를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하게 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훗날 우리의 뒤를 이은 후배들이 칼스텐츠도 등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등정하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2년 전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를 오를 때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등정에 성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등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정상에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쉬운 등정이었기에 감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작든, 크든, 높든, 낮든 산은 산입니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감동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산에 올랐으면 합니다.

세계7대륙 최고봉에 대한 도전은 우리 용봉인들의 기상과 도전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원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성개 대장을 비롯한 김태중, 김영필, 이나원 대원께 드립니다.

원정단장 최희동



세계 7대륙 중의 여섯 번째 봉우리 호주대륙 최고봉 코시어스코의 힘찬 기운을 모교에 전한 대장으로 새겨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칼스텐즈를 목표로 훈련을 하면서 원정경비와 등반기술의 어려움으로 훈련대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정 한 달을 남겨두고 현지 사정으로 인해 대상산을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고 코시어스코 정상 등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최희동단장님과 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년 전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오른 엘브루즈 정상에서 영하 25도, 초속 35m 강풍의 혹독한 눈보라를 경험했기에, 이번 원정에서 강한 눈보라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했고, 또한 좋은 날씨 덕분에 어렵지 않게 등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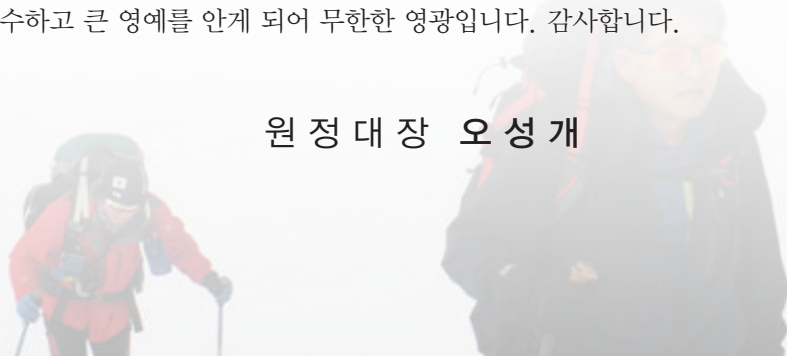
하산한 뒤부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 3일 연속 심한 눈보라가 쳤던 상황과 끝없는 설원을 생각하면 도전에 큰 고난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인간의 의지와 자연에 겸손해야함을 배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라도 하늘이 알고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등정의 성공으로 전남대학교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16년 총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기획되고 있는 7대륙 최고봉 중 정점인 남극 빈슨매시프봉을 등정하여 7대륙 최고봉 완등을 이루는 그 날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2014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호주 코시어스코)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허정총동창회장님과 임원님, 노동일총동창회이사장님 그리고 이연익서울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산악회와 OB산악회, 전남대학교의과대학산악회, 교수산악회, 교직원산악회, 병원산악회, 총동창산악회, 서울동창산악회등 8개 산악단체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의 미래의 지향을 밝혀줄 다섯 번째 엘브루즈, 여섯 번째 코시어스코 대장으로 서 사명을 완수하고 큰 영예를 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정 대 장 오 성 개





원정 추진 및 준비



-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 1-2. 훈련일지
- 1-3. 발대식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연 도	월	구 분	비고
2012	8월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인 “2012 전남대학교 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등반”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6번째 오세아니아주 최고봉 ‘칼스텐츠’로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함.	
2013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와 전남대학교 OB산악회를 중심으로 칼스텐츠 원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함	
2014	3/24	원정추진단 구성 : 최희동(단장), 양채열(부단장), 장희(부단장),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윤현식(훈련지원), 김태중(훈련대원), 이나원(훈련대원)	
	4월	8개의 용봉인 산악회 구성원을 중심대상으로 대원 모집함	
	4/20	1차 훈련(월출산 시루봉 일원)	
	5/11	2차 훈련(무등산 새인봉 일원)	
	6/06	3차 훈련(월출산 시루봉 및 사자봉 일원)	
	7월	칼스텐츠 현지사정으로 대상지 변경함(정국불안 등) 오세아니아 최고봉(칼스텐츠) → 호주대륙 최고봉(코시어스코)	
	8/04	발대식(전남대학교 본부 국제회의동 1층 세미나실)	
	8/09	최종 장비점검(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8/09	4차 훈련(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군왕봉)	
	8/14	출국(원정대장 오성개 외 4명)	
	8/19	귀국(원정대장 오성개 외 4명)	
	9월	보고서 편집	
	11월	보고서 발간 및 발송	
		마지막 7대륙 최고봉(남극 빈슨매시프) 자료 수집	

1-2. 훈련일지

■ 제1차 훈련

일	시	2014. 4. 20. (일)		
장	소	월출산 시루봉 일원		
참	석	자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태중, 윤현식, 이나원	
훈	련	내	용	암벽등반 및 주마령



시루봉에서 단체사진



하강중인 이나원 대원

■ 제2차 훈련

일 시	2014. 5. 11. (일)
장 소	무등산 새인봉 일원
참 석 자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윤현식, 이나원
훈 련 내 용	티롤리안 브릿지



오성개 훈련대장



윤현식 대원

■ 제3차 훈련

일 시	2014. 6. 6. (금) ~ 6. 7. (토)
장 소	월출산 시루봉, 사자봉 일원
참 석 자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정오승, 김길봉, 권경희, 김태중, 이나원, 김민규
훈 련 내 용	암벽등반, 릿지등반, 주마링



사자봉에서 하강 후 단체사진



주마링 훈련중인 이나원 대원과
김태중 대원

■ 제4차 훈련

일 시	2014. 8. 9. (토)
장 소	광주 북구 군왕봉 일원
참 석 자	최희동(단장), 오성개(대장), 김태중(부대장), 김영필, 이나원
훈 련 내 용	용봉인 산악회 중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와 동행산행(야간산행)



군왕봉 정상에서 단체사진



군왕봉에서 내려다 본
광주의 야경

■ 제5차 훈련

일 시	2014. 8. 9(토) 11:00
장 소	전남대학교 수의대
참 석 자	오성개(대장), 김태중(부대장), 김영필, 이나원
훈 련 내 용	개인장비 항목별 준비여부 점검 및 공동장비 점검



개인장비 점검



개인별 배낭 무게 점검

1-3. 발대식

일 시	2014. 8. 4. (월)	사회: 김영필
장 소	전남대학교 본부 국제회의동 1층 세미나실	
참 석 자	■ 대 원: 최희동(단장), 오성개(대장), 김태중(부대장), 김영필, 이나원 ■ 학 교: 지병문(총장) ■ 총동창회: 허정(회장), 노동일(이사장), 정인채(수석부회장), 서동희(사무처장) ■ 광주은행: 정복남(지점장) ■ 광주산악연맹: 송덕환(차장) ■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정우연(전무이사), 이정현(이사), 허환(이사) ■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양채열(회장) ■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 윤현식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장희(회장), 김훈봉, 김재률, 박향식, 제갈호일, 이은수(운영위원장), 백두인(감사), 김용욱, 박헌주(부회장) 가족 ■ 전남대학교 산악회: 박지영, 윤상화, 윤장한, 김태균, 김근영, 차태양	
식 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내외빈소개 4. 격려사 및 인사말: 전남대학교 지병문(총장), 총동창회 허정(회장), 최희동(단장), 오성개(원정대장) 5. 대원소개: 오성개(원정대장) 6. 원정개요 소개: 오성개(원정대장) 7. 꽃다발 및 격려금 전달 8. 폐회선언 - 기념촬영	



발대식 후 기념촬영

02

원정 개요



- 2-1. 원정결과
- 2-2. 운행결과
- 2-3. 원정대원
- 2-4. 코시어스코 개요
- 2-5. 등반루트

2-1. 원정결과

1. 명 칭: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등반
2. 대 상 산: 호주대륙 최고봉 코시어스코(Kosciuszko 2,228m)
 - 행정적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코시어스코국립공원
 - 지리적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노이 산군
(36°27'S, 148°00'E)
3. 등반루트: 노말루트 (Merritts Nature Track ~ Mt. Kosciuszko Track)
4. 원정기간: 2014년 8월 14일 ~ 8월 19일 (5박 6일)
5. 원정대원: 원정대장 외 4명
6. 등반목적: 가) 전남대학교 개교 62주년, 총동창회 창립 58주년 기념
나) 후학들에게 용봉인의 도전정신 고취
다) 용봉인 산악회 세계7대륙 최고봉 6번째 등반

지역	최고봉	용봉인 등정자(입학년도)
① 아시아	에베레스트 (8,848m)	2000년 박헌주(86) 2006년 이현조(92) 이형관(95)
② 남미	아콩카구아 (6,959m)	2000년 서은호(84) 2001년 이현조(92)
③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5,895m)	1996년 이정옥(69) 2000년 김훈봉(59) 2009년 박주현(07) 2013년 설낙순(84) 김태중(88)
④ 북미	데날리 (6,194m)	2009년 김가영(02)
⑤ 유럽	엘브루즈 (5,642m)	2012년 오성개(76) 윤성룡(82) 설낙순(84) 김태중(88) 윤현식(96) 이재국(04)
⑥ 호주	코시어스코 (2,228m)	2014년 최희동(74) 오성개(76) 김태중(88) 김영필(88) 이나원(12)
⑦ 남극	빈슨매시프 (4,897m)	2016년 예정(총동창회 60주년)

7. 등반결과: 2014. 8. 16 12시 05분, 대원 전원 등정
8. 연 락 처: 원정대장 오성개 010-8547-8125

2-2. 운행 결과

날짜	내용	교통	일정
1일	이동	버스 비행기	10:30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인천공항 18:50 인천공항 출발 06:15 시드니 도착(시차 +1시간, 비행 10시간 25분)
2일	이동	버스 승합차	07:25 시드니 → 캔버라(6시간) 15:00 캔버라 → 트레드보마울(3시간)
3일	등정	산행	06:00 기상 및 조식 07:30 출발 12:05 정상(2,228m) 등정 17:40 숙소 도착
4일	이동	버스	11:50 트레드보마울 → 캔버라 16:50 캔버라 → 시드니
5일	관광	승합차	시드니 시내관광 (시드니 타워, 오페라하우스 등)
6일	이동	전철 비행기 버스	04:00 시드니 출발 07:00 시드니공항 출발 18:30 인천공항 도착 → 버스로 이동 후 해산

2-3. 원정대원



단장 | 최희동

- 1974 전남대학교 입학
- 2001~2006 광주광역시체육회 감사
- 2003~2010 전남대학교 사무총장
- 1990 일본 북알프스 동계 등정
- 1991 대만 옥산 등정 ■ 1993 키나발루 등정
- 2006 전남대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단장
- 2007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상' 수상
- 2012 엘브루즈 등반(부단장)
- 現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회장
- ▶ (주)지오투정보기술 부사장



대장 | 오성개

- 1976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 1990 낭가파르бат 등반대장
- 2000 키나발루 등정
- 안나푸르나 트래킹, 락시피크 등정
- 2008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대장
- 2009~2010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
- 2012 엘브루즈 등정(원정대장)
- 現 ▶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고문
-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감사
- ▶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상임교감
- ▶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부대장 · 행정 | 김태중

- 1988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입학
- 2009~2012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총무역임
- 2012 유럽최고봉 엘브루즈 등정
- 2013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
- 2014 에베레스트 BC 칼라파타르 등정
- 現 ▶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부회장
- ▶ 광주광역시 스키협회 이사
- ▶ 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장비 | 김영필

- 1988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등산학교수료
- 1994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제1기 졸업
- 2003~2010 광주산악연맹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
- 2006 전남대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대장
- 2006 용봉인 영예대상 수상
- 2008 전남대 가셔브롬 I, II 원정대 대장
- 2012 전남대 엘브루즈 원정대 부대장
- 現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부회장
 - ▶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상임부회장(교육분과)
 -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부회장 겸 산악대장
 - ▶ (사)광주전남등산학교 교수 겸 교무처장



기록 | 이나원

- 2012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 2012 대통령기 등산대회 1위
- 2013 대통령기 등산대회 1위
- 2014 대통령기 등산대회 1위 (3연패)
- 2014 문경새재 전국등산대회 우승
- 2014 전국체육대회 “산악” 우승
- 現 ▶ 전남대학교 산악회 부회장
 - ▶ (사)광주전남등산학교 강사
 -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재학중

2-4. 코시어스코 개요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개관

정식 국호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한국어권에서 공식적으로 일컫는 국호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이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길고 비슷한 이름의 오스트리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에서는 한자 음역인 ‘호사태랄리아(濠斯太刺利亞)’를 줄인 호주(濠州)라는 이름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서도 주한 호주 대사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주(濠州)는 남반구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북쪽에는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북동쪽에는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 뉴 칼레도니아, 그리고 남동쪽에는 뉴질랜드가 있다. 국명의 어원은 라틴어 오스트랄리스(Australis, '남쪽'을 의미함)에서 유래하였다.

18세기 말 유럽인들의 이주 전 최소 40,00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606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이후, 1770년 대영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으며, 1788년 1월 2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식민지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인구는 차츰 늘기 시작했고, 대륙은 계속 탐험되어 다섯개의 자치 식민지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었다. 1901년 1월 1일, 여섯개의 식민지가 연합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설립하였다. 모국인 영국과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다른 정체성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모국과 분리되었으며, 1948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대영제국 신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사

용하게 되었다.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영국 의회의 오스트레일리아 내 입법권이 정지되었으며, 사법권도 최고재판소가 런던의 추밀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으로 옮겨짐으로서 영국과의 남은 법적 종속관계를 단절하여 자주국가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표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이며,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연방 성립 이후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여섯개의 주와 여러개의 해외영토로 구성되어 있고 2천2백90만 정도의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는 대부분 동쪽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화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



오스트레일리아는 GDP가 세계에서 열 세 번째로 높고, 1인당 GDP는 여섯번째로 높은 대표적 선진국이다. 군비지출은 열 두 번째로 많으며, 인간 개발 지수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등 다양한 국가간 비교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G20,

OECD, WTO, APEC, 국제 연합, 영국연방, 앤저스(ANZUS), 태평양 제도 포럼, FIFA, AFC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2012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조사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나라로 나타났다. (위키백과 인용)

2) 코시어스코산 개요

■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Great Dividing Range]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다. ‘대분수산맥’이라는 뜻이며, ‘이스턴하일랜드(Eastern Highlands)’라고도 한다. 길이 약 3,700km, 너비 약 150~450km, 북쪽의 요크곶 반도에서 남으로는 빅토리아주의 남서부까지 이어져 있으며, 많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해발고도 800~1,500m. 대분수령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서쪽 사면은 머리강(江)의 수원의 일부가 되고, 동쪽에서 스노워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산맥은 뉴사우스웨일스주(州)에서 빅토리아주에 걸쳐 서쪽으로 만곡하며, 습곡한 고생층과 이를 꿰뚫은 화강암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반운동 결과 해안선쪽으로 험준한 단층애를 형성한 경동지괴(傾動地塊) 산지이다.

동해안의 급사면은 많은 강수량과 현곡(懸谷)의 계곡미로 알려져 있으며, 남류하는 스노워강에는 댐과 터널에 의한 수력발전소가 30여 개나 된다. 또한 머리분지의 관개시설에 용수를 공급한다. 서쪽 비탈은 완경사면을 이루는 데다가 머리강이 흘러내려 건조지역의 수원으로서 큰몫을 하여 밀과 양모의 대생산지대를 이룬다. 코시어스코산(山)은 산정부에 빙하지형이 발달되어 있으며, 겨울은 윈터스포츠의 메카로서 스키객, 여름은 피서 · 관광객으로 붐빈다. 해발고도 1,200m까지는 유칼리나무 숲이 무성하고, 1,600m 이상은 대체로 고산식물 지대를 형성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산맥 [Australian Alps]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의 남단을 이루는 산맥이다. 평균 해발고도는 800~1,500m이며 여기에 주봉우리인 코시어스코산(2,228m)이 있다.

■ 코시어스코 국립공원

호주대륙의 최고봉인 코시어스코산(2,228M)을 포함하고 있다. 코시어스코산은 호주 유일의 설산으로 광대한 스키 슬로프(Ski slope)가 있다. 호주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호주 최고봉과 최고의 스키 슬로프(Ski slope)를 갖춘 종합 자연 레저 공원으로 연중 등반이 가능하며 등반뿐만이 아니라 낚시, 골프, 사냥, 그외 각종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호주의 특성다운 오토 캠핑장소로 수려한 경관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주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다. 스키는 호주의 겨울인 6월 말부터 9월까지만 가능하다.

■ 코시어스코산

- 명칭: 코시어스코(Kosciuszko 2,228m)
- 행정적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코시어스코국립공원
- 지리적 위치: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노이 산군
- 위도: 36°27'S
- 경도: 148°00'E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남동부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최고봉이다. 코시어스코 국립공원의 중심지로 등산과 겨울 스포츠가 행해진다. 1840년 폴란드의 탐험가 Paul Strzelecki에 의해 명명됐으며 러시아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벌였던 폴란드의 혁명가 Thaddeus Kosciuszko를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인 등반적기는 하절기인 11월 ~ 5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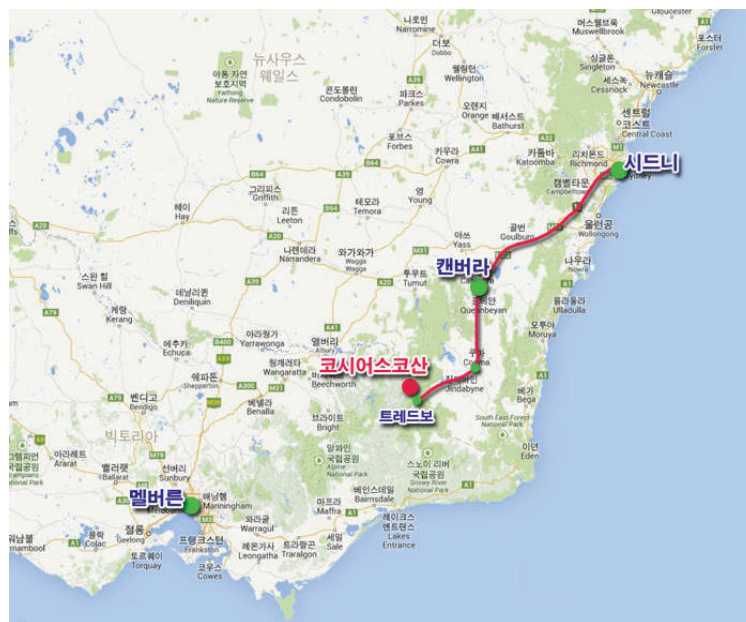
숙소에서 바라본 코시어스코 능선 및 스키장 전경

2-5. 등반루트

1) 접근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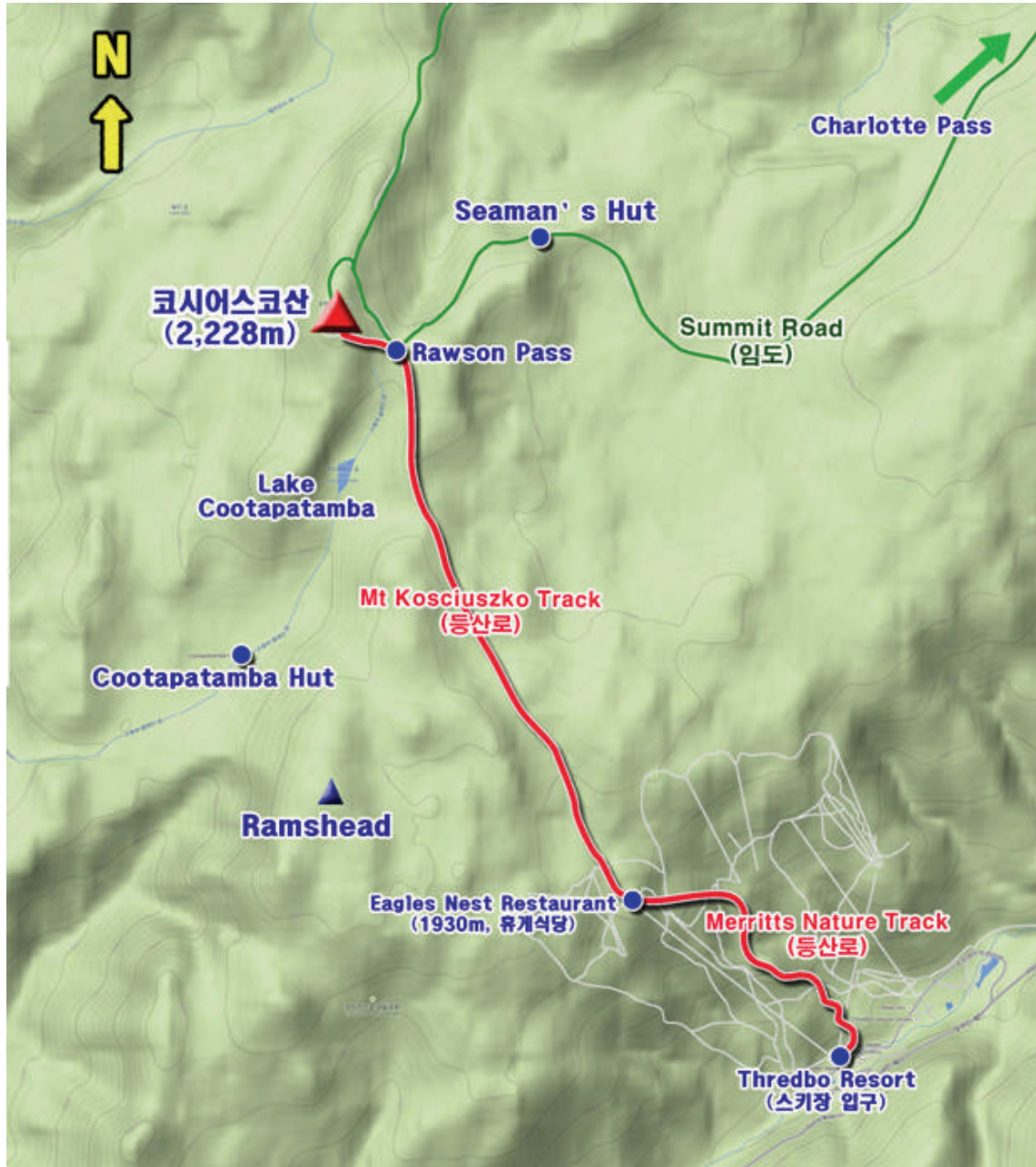


항공노선(인천-시드니 직항노선)



접근도로(시드니-캔버라-쿠마-진다빈-트레드보)

2) 등반루트(노말루트)



트레드보마을-스키장입구(봅슬레이장)-휴게식당-로슨패스-정상

은행 기록



3-2. 대원별등반기

3-1. 전체 운행기록

전남대학교 산악회 12학번 이나원

원정 1일째 : 8월 14일(목)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인천공항 - 시드니

09:00 마음이 뒤숭숭한 까닭에 밤새 뒤척이다가 늦잠을 잔다. 서둘러 씻고 나와 배낭을 메고 배웅하는 동생을 뒤로 하고 터미널로 향한다.

10:30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도착. 인천공항 홈으로 가는데 부대장 김태중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급해 보이셨다. 들어보니 단복 상의와 비슷한 색인 광주전남등산학교 티를 입고 와버렸단다. 사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후에 두고두고 애깃거리가 되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승강구에 가니 희태 형과 용욱 형, 재학생 회원 진현 형과 장한, 근영과 태양이 배웅 나와 있었다. 정말이지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정말 많이 감사하고 고마웠다. 서둘러 사진을 찍고 10시 30분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떠나는데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시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깊은 감동을 받았다.

12:30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4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다. 점심을 먹자고 해서, 나는 주어진 20분 동안 간단한 간식으로 해결하겠거니 생각했는데, 휴게소 안에 들어가 밥을 먹자고 했다. 고속버스를 여러 번 탔지만 휴게소에서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 먹어본 기억이 없다. 선배들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원정의 시작이 지금 이 밥을 먹는 것부터라고

생각하니 비빔밥 한 공기를 빠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15:00 인천공항 도착. 처음 와본 인천공항은 무지 깔끔했고 또 엄청나게 컸다. 시간이 많이 남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무렵, 단장님이 도착하셨고 우리는 처음으로 현수막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탑승수속을 마치고 입국심사를 받았다.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인천공항의 식당 안에서

남았다며 출정식을 하자고 하여 면세점 내 식당에서, 사시미와 소고기볶음, 육개장을 안주삼아 소맥을 마시고 원정의 성공을 기원했다. 원정의 실감이 났다. 좋은 기분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호주를 향해 떠났다.

원정 2일째 : 8월 15일(금) 시드니 - 캔버라 - 트레드보마울

05:40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몇 번 타봤지만 해외여행... 그것도 밤을 꼬박 세운 11시간의 비행은 아주 힘들었다. 차멀미를 했던 적은 있지만 비행기야 무슨 멀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기내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비행 내내 메스꺼움과 어지러운 최악의 구토..를 경험해야 했다. 이코노미석이라 그런 건가 버스 의자보다 약 100배는 불편하고, 앞뒤 좌석과 딱딱따닥 붙어있는 바람에 발도 제대로 펼 수 없었다. 그리고 기류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동체가 흔들려 멀미를 가중시켰다. 더군다나 시드니에 착륙할 때 엄청 고생을 했다. 벨트를 매고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속이 매스껍고 구토가 나와 일어났다가 깜짝 놀란 승무원언니가 급히 오기에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그래도 일어나면 안 된다'며 앞의 검은 봉지에다 하라고 했다. ㅠ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어찌란 말인가, 참고 또 참는 수밖에, 그 말을 듣고 침을 몇 번 삼켰더니 신기하게도 속이 괜찮아졌다. 봉지에다가 토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뻔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시드니 공항

06:15 시드니 공항 도착. 시드니는 겨울이라 공항 안인데도 추워서 파일을 꺼내 입어야했다. 멀미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도 속이 메스꺼워서 힘들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식품검역이 철저한 나라이므로 검사를 받는데 검역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개, 비글이었다. 입국자들이 두 줄로 서있으면 검사관이 비글을 데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람들 배낭을 한 번씩 맡아보게 하는데 비글의 귀여운 외모 때문인가 내 눈에는 장난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교수님께 들어보니 치밀하게 포장을 해서 가져가도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개라고 하셨다. 하지만 단장님은 한국에서 가져오신 반찬들을 의심하지 않는 걸로 보아, 훈련 받은 음식밖에는 잡아내지 못한다며, 딱 학습한 것 밖에 모르는 의구심이 전혀 없는 개라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07:25 캔버라까지 가는 버스가 7시 20분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조금씩 걱정이 쌓여갈 무렵,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다. 교수님 표정이 밝아졌고, 교수님이 기사아저씨한테 “You’re late!!”하니 기사 아저씨가 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다. 교수님이 출발 전에 ‘혹시 물티슈 있냐?’며, 차에서 화장실 좀 가려고 하신다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나는 버스를 타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토가 넓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호주의 특성상 버스 맨 뒤에 화장실이 있었다. 아무튼 버스를 타고 캔버라까지 약 6시간동안 이동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속이 좋지 않아 창가에 머리를 대고 있다 잠이 들어버렸다. 중간에 대장님과 부대장님이 그만 자고 양들과 소, 호주의 아름다운 경치 구경을 하라고 깨웠는데 잠깐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잠깐 보다 자고를 반복해야 했다.

12:20 캔버라 도착. 점심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꽤 괜찮은 식당을 발견해서 그곳으로 결정하여 들어갔다. 피자과 파스타,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코시어스코라는 상표의 맥주를 한잔씩 마셨다. 호주에 도착하여 처음 먹는 음식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었다.

13:55 점심을 마치고 트레드보 가는 밴을 만나기로 약속한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갔다. 택시 두 대로 나눠 타고 가기로 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중형택시가 있어 한 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가는 도중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며 구경했는데 영화에나 나올법한 조형물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14:20 캔버라에서 대사관 거리는 관광코스의 하나다. 자기나라의 문화와 국력을 자랑하듯 건축물의 독창성을 살리며 외관 또한 화려하고 넓은 다른 나라 대사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사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할 무렵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앞에 있는 일본대사관 보다 규모가 작아 조금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국 대사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다.

담벼락이 한국의 전통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었고, 뭔가 대사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를 받는 느낌이였다. 한국대사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휴일인데도 대사관에 들리신 직원 을 만나 단체사진도 찍었다. 밴을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이 3시여서 남은 시간에 대사관 거리를 구경하며



캐나다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3시가 가까워져 우리 대사관으로 돌아왔으나 약속했던 뱅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수님이 초조해하며, 한국대사관이 너무 작아서 못 찾는 것이 아닐까 하며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자 뱅이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뱅으로 생각했는데, 6인용 지프 뒤에 썰매를 연상

케 하는 트레일러를 끌고 나타났다. 짐은 뒤의 트레일러에 싣고, 조수석에 교수님이 타시고 우리는 뒤쪽으로 나누어 탔다. 교외로 벗어나면서 마트에 들러 간식과 반찬을 구입하고 트레드보 마을을 향해 출발하였다. 나는 멀미 때문인지 트레드보까지 가는 내내 졸다 잠시 깨어 구경하기를 반복했다.

18:15 트레드보마을 도착. WINTERHAUS 숙소를 찾아 헤매야 했다. 경사진 골짜기에 집들을 지어 마치 우리나라의 다랑이 논을 보는 것 같았다. 특히 숙소 간판이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아 숙소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같은 장소를 두 세 바퀴 돈 후에 겨우 찾은 숙소는 도로에서 내려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외관부터가 은근하게 외국 분위기를 풍겼고, 시설 역시 별로 나쁘지 않았다. 다만, 성수기여서 인지 숙소 시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쌌고, 주인아저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불친절했다.(사실 우리가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짐정리를 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해 먹으려는데(우리는 숙소가 우리의 콘도 같은 것으로 알고 예약했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취사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전부였다. 계란 후라이라도 해먹고 싶었던

우리는 마침 지나가는 주인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해보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반전매력... 단호하게 “NO!” 하며 거절하신다. 하는 수 없이 컵라면과 누룽지로 때우다가 단장님의 아이디어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계란찜을 해 먹었다. 내일 일찍 산을 올라야 해서 나른 절주를 하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트레드보의 숙소전경

원정 3일째 : 8월 16일(토) 정상등정

06:00 기상. 어제 밤에 챙겨놓은 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는 밑에 있는 식당에 내려가 밥 대신 누룽지로 아침식사를 해결했다. 취사도구가 없다보니 이번 원정에 누룽지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식량이 되었다.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해결한 뒤, 정상상을 향해 숙소를 출발했다.



Merritts Nature Track 초입

06:40 트레드보 여행자센터에서 산악가이드인 필(Phillip)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미리 수령했던 설피를 받아들고 오른쪽에 있는 봄슬레이 경기장 출발지로 향했다. 우리가 이번에 등반할 코스는 Merritts Nature Track라는 코스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임도 있었다. 봄슬레이 경기장이 출발점을 돌아 계곡을 끼고 나아가니 숲속으로 등산로가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초록색 식물들이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 산과 다르다는 인상을 가장 깊게 심어준 것은 단연 고도가 높아질수록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설산이었다. 주위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하얀색 눈밖에 없어 해외원정이 처음인 나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09:00 한참 올라왔더니 Eagles Nest(독수리둥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스키어들은 이곳까지 리프트를 이용하여 쉽게 올라와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곳에서 설피를 착용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 출발했다. 최신형 설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장비라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신다보니 적응이 되었고, 이 설피 덕분에 우리는 쌓여있는 눈에 깊숙이 빠지지 않고 스피드를 내어가며 등반을 할 수 있었다. 고도를 높일수록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여우 발자국도 많이 보였다. 등반하면서 여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옆에 내심 기대하면서 둘러보았으나 끝내 여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아 늑대는 없구나!) 스키로 유명한 곳이어서 독수리둥지 부근에는 스키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상을 향한 우리만이 재촉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상부근에 스키자국이 보여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스키를 메고 정상까지 올라가 스텔을 즐기며 내려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와는 다른 방향, Charlotte Pass(페리셔리조트쪽)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분들과는 끝내 마주치지 못했다.

12:05 필이 알려준 정상상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걷고, 쉬고를 반복한지 어언 5시간. 현지시각 12시 05분,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벽난로처럼 생긴 구조물과 그 위에 있는 코시어스코 정상표지판이 우릴 반겨주었다. 정상에 오른 기쁨을 한참 누리며 사진을 찍고 있을 동안, 산악자



정상을 향하여

전거를 끌고 한 사람이 올라왔다.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고, 영필 형이 가지고 온 깃발들을 꺼내 한 컷, 한 컷 사진에 담았다. 도움을 받은 곳이 너무 많아 필에게 미안해서, 영필 형과 교체하여 남은 사진을 정성껏 촬영했다. 정상 사진촬영을 마치고 숙소에서 가져온 양주와 간식들, 토마토를 안주삼아 정상 등정주를 나눠 마시고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서둘러 하산했다. 이런 설산을 언제 또 보겠는가 생각이 들어 오늘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웠다. 다행스럽게 날씨가 좋아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고, 햇볕 때문에 자외선이 엄청 셀 거라고 했지만, 정상에 오른 나에게 자외선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억을 위해 또렷하게 이 멋진 경치를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려가는 코스라 그런지 확실히 오를 때 보다는 속도가 났다. 한참을 내려가니 우리가 설피를 처음 신었던 독수리등지가 보였는데, 그곳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여, 휴식도 할 겸 그곳에 들어가 정상 등정 축하를 위한 맥주를 한잔씩 마셨다. 필이 말하길, 자신은 여름에는 서핑강사로 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강사를 한다고

했다. 스키에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 조차 한 번도 탄 적이 없다는 초기의 산악스키, 텔레마크(Telemark)스키를 타는 대단한 능력자였다. 이곳에서 필과 헤어져 우리는 다시 트레드보마을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어차피 하산 길이므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



코시어스코 정상에 서서

는 미덕을 보여주지지 않을까 잠시 기대했는데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선배들을 약간은 원망하면서 부지런히 하산하였다.

17:40 불평도 잠시 어느새 아침에 출발했던 입구에 도착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간단하게 샤워를 한 다음, 정상등정을 축하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휴게식당 “독수리 둥지”에서 자축하는 대원들

다시 원위치하여 숙소에서 축하의 만찬(밥 대신 누룽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양에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니 가슴 아픈 추억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소고기와 소시지, 컵라면, 누룽지 등을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에 이용하여 자축연을 즐겼다. 그래도 술이란 게 좋은 것인지 조금은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반전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는데 창밖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정상 부근은 지금이면 눈보라가 날리고 기온도 떨어져 등반루트 찾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아닌 즐거움으로 술자리는 다시 뜨거워졌다.

원정 4일째 : 8월 17일(일) 트레드보마울 – 캔버라 – 시드니

09:55 10시 체크아웃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여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거세지며 빗방울이 진눈깨비로 바뀌어 어제보다 더 춥어졌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등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오전에는 여는 식당도 없고, 찾 집을 가자니 돈이 아깝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12시 50분 버스를 타야했기에 이른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비는 오고 던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코시어스코 밀둥이를 산책하면서 시간을 때웠다. 11시 30분 쯤 식당으로 갔다. 런치메뉴는 12시부터 주문이 가능해서 우선 커피 두어 잔을 시켰다. 쿠키도 같이 나왔는데 초코볼 같은 것들이 콕콕 박혀있어 색깔이 아름다운 쿠키였다. 커피의 향이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12시 양고기와 연어요리, 감자샐러드 등을 주문했다. 짧은 시간에

급히 먹는 점심이었지만 맛있는 오찬이 되었다. 굵은 빗방울은 장대비로 바뀌고 코시어스코는 안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비라면 정상 주변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하루만 늦었으면 등정을 실패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휴~~~ 12:50 캔버라행 버스가 도착하여 배낭을 실은 뒤에 버스에 탑승했다. 예약제였는지 이름을 한 사



시드니의 한식당에서 맛보는 야식

람 한 사람 확인 했는데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가 신기했다.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교수님이 예약을 확인하다가 떨어져있는 나를 가리키며 “ugly girl!”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엄청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21:15 환승을 2번 한 뒤 드디어 시드니에 도착했다. 외국식의 건물들과 간판들, 사람들을 보면서 걸어가

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투숙할 호텔을 딱 맞게 찾아가는 교수님이 대단해보였다. 호텔에 도착하여 각자 방을 배정받고, 시드니의 야경을 구경하러 나섰다.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검정머리의 한국인, 일본인, 특히 중국인이 무지 많았다. 어디를 갈까 망설이다가 한식당을 찾아 곱창과 삼겹살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신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원정 5일째 : 8월 18일(월) 시드니관광

09:00 시드니 시내투어를 하려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도 버스가 오지 않아 여행사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다. 우리가 장소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 호텔에는 문이 두 개였던 것이다. 가이드를 만나 버스에 오르니 먼저 온 두 사람의 한국인



더들리페이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이 있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투어가 시작됐다.(항상 고독하게 담배를 피던 영필 형이 동지를 만났다고 특히 좋아했다.) 처음으로 시드니타워를 갔는데, 시드니의 유명한 명소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4D를 감상하고는 호주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타워를 올라갔다. 오페라하우스부터 타워브리지 등 시드니의 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바람과 비가 세차게 부는 것이 좀 아쉬웠으나 서핑의 명소라는 본다이 비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갭 파크, 사진 촬영 명소인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등등 시드니의 명소들을 직접 돌아보니 날씨 걱정은 벌써 사라지고 왜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인지 이해가 됐다. 드디어 점심을 먹으러 캡틴 쿡 크루즈 선착장으로 갔다.

12:25 캡틴 쿡 크루즈 탑승. 가이드분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 별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미리 조언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괜찮았다. 특히 중국식의 계란죽이 맛있어서 몇 번 떠다먹었다. 배에서 점심을 먹고 시드니 해안가를 한 바퀴 도는 좋은 크루즈여행이 되었다. 배에서 내려 앞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관람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여기는 듀공 보러 가는 곳이라고



하셔서 만화에서만 보았던 듀공을 유람선에서 Commonwealth기와 함께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기념품가게가 나올 때까지 듀공은 보이지 않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9월에나 다시 온다고 했다. 듀공과 한 발짝 떨어진 우리는 다 같이 실망했으나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해양생물 가이드를 받으며 재미나게 감상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했다. 오페라하우스 모양의 유래가 써진 간판을 보러가려했으나 공사 중이어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사진만 찍고 내려왔다.

18:30 투어를 마치고 시드니의 밤을 즐기기 위해 다 같이 시드니 거리로 나섰다. 가이드분이 소개해주신 식당들은 가격들이 터무니없이 비쌌기에, 어제 갔던 한국식당 옆에 있는 다른 한국식당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 고기와 새우를 먹으며 소맥을 마셨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다. 여기서 교수님이 새우껍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하자 단장님이 책을

한 권 내라고 제안하셨는데, 정말 이 책이 출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봤다.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고 호텔로 돌아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아쉽지만 잠을 청했다.

원정 6일째 : 8월 19일(화) 시드니 - 시드니공항 - 인천공항

03:00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일찍 일어나서 영필 형이 어제 밤에 불러 놓은 누룽지를 간단히



자동발매기에서 전철 티켓을 끊는 중

끓여 남은 김치를 꺼내 호주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했다. 아침 6시 반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04:00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전철을 타러 출발했다. 부대장 김태중 교수님이 자동발매기에서 티켓을 끊는데, 뒤에서 전철 가격을 보고 호주 물가에 다시 한 번 놀란다. 호주 전철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다 버스처럼 의자까지 잘 놓아져 있어서 우리나라 지하철도 이런 방

식이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부대장 김태중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콩나물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힘들다고 설명해주셨다. 몇 정거장을 갔을 무렵 김태중 교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 무사히 한국 갈 수 있을까?” 하셨는데 5초 후 “내 가방! 작은 파란색가방!”하셨다. 둘러봐도 가방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는 교수님이 티켓 발매하던 중 가방을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태중 교수님은 바로 내려 처음 탔던 역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는 공항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김태중 교수님을 보내고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엄청 걱정이 되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제발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05:05 공항에 도착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데 교수님과 연락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가방을 찾았다고 한다. 교수님이 오셔서 전철역에서의 해프닝을 들려주셨다. 전철역에 도착해 자동발매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가방이 없어, 일단 거기 있는 노숙자들을 쫓 둘러봤단다. 하지만 호주의 노숙자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 움직일 만큼 부지런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티켓 끊는 창구에 갔는데 사람이 없었고, 분실물센터(Lost&Found)를 가서 가방을 찾았더니 거기서 “What color?”라고 물어보더

란다. 교수님은 안도하셨고 듣는 나 또한 안도했다. 수속을 끝내고 6시 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면세점을 빠르게 훑어보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 연기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 주변 면세점을 좀 더 구경하고 시드니공항 와이파이로 잠시 문화생활을 누렸다.



07:00 드디어 비행기를 탔다. 첫 날 인천공항 도착

비행기에서 속 안 좋았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속이 괜찮았다. 덕분에 기내식 2번을 맛있게 먹고 이상하게 잠도 오지 않아서 영화를 3편이나 볼 수 있었다. 약 11시간 비행 끝에 착륙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이 보였다.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

18:20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끝내고 배낭을 찾았다. 김태중 교수님은 의사 자격증으로 인해 검역소에 들르서 소독을 하시고 오셨고, 다녀오실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교수님이 돌아오시고 드디어 광주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천천히 이동하는 바람에 18:45에 출발하는 광주행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버스가 19:20에 있는데 매진이 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 버스는 20시가 넘는 시각에 있다. 우선 서울로 가시는 단장님과 작별인사를 하고, 하는 수 없이 바로 있던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23:00에 도착예정인 전주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 편을 알아보는데 막차가 23:00여서 걱정하고 있을 때쯤 희태 형께 전화가 왔고, 용욱 형이랑 은수 형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전주까지 와주시는 정성이 정말 감동이었다. 마중 나와 주신 형들 덕에 광주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원정이 끝났구나하는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다.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사랑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께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2. 대원별 등반기

찬란한 은백색이 넓게 펼쳐진 산

최희동 단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총동창산악회장)



세계7대륙 최고봉의 마무리가 될 남극의 빈슨매시프를 향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원정이지만 다른 원정 때 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7대륙 최고봉을 등정했던 사람들은 코시어스코 등정을 ‘한 타임 쉬어가는 등산’이라고 표현한다. 바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산의 높이가 7대륙 최고봉 중 가장 낮고 난이도면에서도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고산을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동계 등산은 당일의 기후 변화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기에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처음 계획은 파푸아 뉴기니 섬에 있는 칼스텐즈 산이었다.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도 했다. 그런데 막상 출발 일자를 확정하려고 하니 현지 여행사의 신뢰도와 비용이 문제였다. 계약을 하려 하자 처음 대화했을 때보다 금액을 터무니없이 올리며 계약금으로 총액의 80%를 요구한다. 돈을 송금했을 때 담보할 만한 게 없었고, 여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민되었다. 또한 대원들 역시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다녀올 계획이어서 무작정 일정을 미룰 수도 없었다. 최상의 결론은 아니라면 차선의 결정이라도 해야 했다. 리더의 외로운 고민이랄까? 아쉬운 감이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호주의 코시어스코 산으로 변경했다.

모든 원정이 그렇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준비사항이지만 막상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정계획에서부터 힘을 북돋아주셨던 허정 총동창회장께서 거금 1,000만 원을 흔쾌히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연익 서울동창회장, 노동일 이사장, 정인채 수석부회장, 용현회, 광주은행 등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다. 호주의 코시어스코 산을 등반하는 여행사가 없어 스스로 현지에서의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예약해야 했다.

코시어스코 국립공원지역이 유일하게 호주에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숙박예약부터 여의치 않았다. 또한 그곳까지 직접 가는 대중교통편이 공항에서 한 차례 있는데, 이른 시간 이어서 우리 스케줄과 맞지 않았다. ‘궁 즉 통’이라고 호주에 거주하는 조카사위를 통해 현지 정보를 듣고 김태중 교수가 예약을 했다. 예상보다 숙박비나 교통비가 비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단식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마무리 훈련을 하고, 출발 전 토요일 무등산 야간산행을 끝으로 준비를 마쳤다. 개인장비와 단체로 구입해야할 물품을 마련하여 14일 15시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14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점심 후, 집으로 돌아와서 배낭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갔다. 광주에서 오성개 대장, 김태중 교수, 김영필, 이나원 대원이 도착해 있다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 공항은 붐볐다. 수속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등정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주(?)를 나누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버티기 위한 슬기로운 지혜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는다. 마침 오늘 오전에 배달된 김진명의 책 ‘싸드’를 읽으면서 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책을 보다, 잠을 자다 깨다하면서 책을 다 읽고 시드니공항에 도착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는 공항 검색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다. 음식물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려는 의지랄까 훈련된 개가 냄새를 맡아 과일이나 육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짐을 적발해 낸다. 나도 배낭 안에 장아찌와 풋마늘김치를 담아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훈련은 못 받았는지 다행스럽게 통과가 되었다.

공항에서 1시간을 기다려 캔버라까지 가는 그레이하운드버스에 탑승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겨울이어서 인지 더욱 황량한 벌판뿐이다. 몇 km를 달려야 겨우 농장 하나가 있고, 마을을 이룬 곳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 캔버라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호주의 행정수도인 캔버라 시내를 관광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였다. 호수를 건너자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왼편으로 대사관들이 모여 있다. 각 나라마다 건물의 모양이 달라 캔버라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된 곳이다. 우리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예약한 배를 기다렸는데, 우리 대사관 앞에 일본대사관이 있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규모면에서 우리 대사관이 너무 좁고 초라하여 씩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은 그래도 운치가 있었다. 길도 구불구불하고 곳곳에 마을들도 있어 마치 우리의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이었다. 가는 도중에 코시어스코 국립공원사무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 겨울 스포츠의 메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우리가 숙박할 곳

은 트레드보라고 스키장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해발 1,400m정도 되는데 우리 시골의 다랑이 논 처럼 계단식으로 숙소와 식당들이 오밀조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예약한 'Winterhaus lodge'를 찾느라 몇 번을 돌아야 했다.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니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콘도식이 아니라 그냥 다섯 사람이 잠만 잘 수 있는 싱글 침대 3개와 2층 침대 하나가 있다. 이런 방을 하루에 80만원이나 받다니 화도 나고 어처구니도 없었지만 어쩔 것인가? 이것도 이틀을 숙박하기로 하고 겨우 예약했는데, 캔버라 마트에서 사간 고기 등은 취사할 곳이 없어 아래층 식당에서 전자레인지에 구워 먹을 수밖에 없었다.

16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먼저 날씨를 확인했다.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도 맑았다. 마음 속 걱정이 없어졌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출발했다. 로지에서 나와 커뮤니티센터로 내려가니 이른 시간인데도 스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스키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봅슬레이 경기장이 있는데 봅슬레이 출발지점에서 'Merritts nature track'이 시작된다. 평탄한 길을 100여 미터 가면 등산로는 봅슬레이경기장 옆으로 난 산길로 이어지는 데 봅슬레이 경기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을에서 올라오는 자전거 트랙과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 바로 왼쪽 계곡을 따라 숲길로 길이 이어졌다.(겨울에는 스키장이지만 눈이 녹는 봄부터는 여러 갈래의 자전거 트랙이 있어 거의 정상까지 산악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다.)

등산로를 따라가니 조그만 캠핑장이 계곡너머에 있다. 캠핑장 표지판을 지나 올라가면 스키 코스와 만나는데 곧이어 다시 등산로는 능선으로 이어져 1.8km 올라가면 'Meadows nature track'과 만나고 2.2km더 오르면 레스토랑이 있는 'Eagles nest(1937m)'에 닿게 된다. 스키장에서 이곳까지는 리프트가 있어 많은 스키어들이 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리프트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2,037m까지 이어지는데 호주에서 가장 높은 곳의 리프트라고 한다.

이곳에서부터는 눈이 많아 준비해 간 설피를 신고 등산을 했다. 주변 풍광은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하늘에는 구름도 별로 없었다. 처음 신은 설피라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이 되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6.5km의 거리인데 '마운틴 코시어스코 트랙'이라는 이름이다. 왼쪽으로는 Ramshead봉이 있고, 우리는 코시어스코 산을 정면으로 향해 오르막을 올랐다. 오르막에 오르자 멀리 코시어스코 정상이 보였다.

우리는 기존 등산로를 따르지 않고 산기슭의 경사면을 횡단하여 가급적 짧은 코스로 정상을 향해 걸었다. 그러다보니 설피와 경사면이 일치되지 않아 발목에 힘이 들어가 보행이 약간 불편했지만 급한 오르막이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날씨가 너무 맑다보니 산행할 때에 땀이 많이 나서

가벼운 차림으로 걸어야 했다.

양 옆으로 봉우리 사이 안부에 도착하여 정상を 바라보니 두 사람이 하산하고 있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왼쪽으로는 코오타파탐바라는 호수와 야생화 군락 등과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통 눈이다. 오른쪽 산허리를 돌아 다른 코스(서밋워크)로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정상까지는 상당한 급경사였다. 완만한 S형태로 걸으며 정상에 올라서니 주변의 모든 산이 하얀 모자를 쓰고 아래로 길게 누워 있다. 코시어스코의 정상에는 마치 굴뚝처럼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정상표지석이 있었다.

우리는 등정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등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996년부터 이어온 전남대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대가 빈슨매시프를 향한 징검다리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정상에서 40분 정도 촬영을 마치고 왔던 길로 하산했다. 카페가 있는 'Eagles nest'에 도착하여 맥주로 정상 등정의 기쁨을 나누고 왔던 길로 하산했다.

다음날은 날씨가 완전히 바뀌어 눈이 내리고 짙은 안개로 산을 볼 수 없었다. 오후 1시 버스로 트레드보를 출발하여 캔버라로 나와 버스를 갈아타고 늦은 시간에 시드니에 도착했다.

마침 귀국까지는 하루 예비일이 있어 시드니관광으로 하루를 보냈다.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라는 시드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항구였다.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 등 유명명소를 관광하고 저녁에는 한식당을 찾아 호주의 마지막 밤을 만끽했다.

대원이 적어 비용 면에서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이동 시 행동이 용이하였고, 등산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아 정상을 예상보다 쉽게 등정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봉에 오르다

오성개 대장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원정을 추진하는 것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국내여행도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해외원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3월 초부터 원정을 위한 훈련대 구성이 논의되어, 최희동 단장님을 중심으로 나와 김태중, 김영필, 윤현식, 이나원대원이 훈련 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훈련대원 선정 과정에서 비싼 등반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회원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칼스텐즈를 목표로 여러 차례의 훈련이 잘 진행되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지 대행사와 등반에 관한 협의가 잘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원정이 가까워지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지 대행사의 무리한 요구와 현지 사정의 변화로 인해 계획된 기간에 등반하기 어렵게 상황이 변해가고 있었다. 쉽게 생각한 원정인데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장인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원정을 취소하느냐 변경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2016 총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 등반인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코시어스코를 등반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불과 1달을 남겨두고 결정이 되어 등반준비를 하느라 최희동 원정단장님과 김태중 부대장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원정을 떠난다. 어렵지 않은 등반이지만 날씨가 잘 맞춰줄 지 걱정이다. 엘브루즈에서 험악한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는 기대도 해본다. 어떤 산이든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없는 법이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대륙 최고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10시에 집을 나서서 광주, 인천을 거쳐 시드니까지 22시간이 걸렸다. 시드니는 겨울이기는 하나 많이 춥지는 않았다. 한 번도 못 가본 곳이 많은데, 3번이나 시드니를 오게 되는걸 보면 특별한 인연이다.

대륙의 광활함을 느끼며 버스로 5시간 걸려 도착한 캔버라는 계획도시답게 정갈하다. 버스정류장

노보텔에서 5분 거리의 아일랜드펍에서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해물에 맥주를 곁들여 밤사이의 피로를 푼다. 근처 슈퍼에 들러 등반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한 후 밴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을 지나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땅값이 비싼 곳도 아닐텐데 앞의 일본대사관에 비해 초라한 크기의 한국대사관을 보자니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트레일러가 달린 밴을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스키시즌이라 아주 비싼 트래드보의 WINTERHAUS 모텔에 여장을 푼다. 피곤하지만 스키장의 불빛과 상쾌한 공기의 느낌이 기분을 좋게 한다. 요리도구가 있다고 한 비싼 모텔에 요리도구는 전자레인지와 전기주전자 뿐이라 막막하다. 임기응변으로 저녁을 해먹고 가볍게 맥주를 한 잔 하면서 등반준비를 한다. 안개가 끼면 등반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저녁 날씨로 보아 내일 날씨는 좋을 것 같아 다행이다. 2년 전 오늘(2012년 8월 15일) 엘브루즈 정상에 섰던 날을 떠올리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잠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좋고 스키장의 불빛이 아름답다. 등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키장을 돌아 어렵지 않게 리프트 포인트에 도착해서 스노우 슈즈로 갈아 신는다. 처음 신어본 스노우 슈즈라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니 적응이 됐다. 발목과 무릎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발이 빠지지 않으니 등반하기에 무척 좋았다. 날씨가 좋아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1시간쯤 걸어가니 멀리 정상이 보인다. 만약 이 넓은 설원에 안개가 끼면 아주 힘들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며 지난 엘브루즈 등반을 떠올리는 한편으로 행복한 생각에 빠져든다.

12시 5분, 날씨가 매우 좋아 편하게 올라선 정상이 믿기지 않는다. 땀이 식으니 약간 추위가 느껴지지만 오랫동안 주변 경치를 만끽하며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2년 전 엘브루즈의 기억이다. '엘브루즈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강풍과 눈보라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산에 대한 대비의 어려움 등...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산을 올라야겠다.' 내가 대장을 맡은 2개의 봉우리를 무사하게 올라 감사하다는 기도와 함께 아쉬움이 밀려온다. 정상사진을 찍고, 정상주를 나눈 다음 다시는 못 볼 코시어스코에게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 내내 뿌듯함과 흥가분함을 함께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한다. 하산을 하고 나니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루만 늦었으면 엘브루즈처럼 힘든 등반이 될 뻔 했다. ㅎㅎ

저녁에 축하파티를 하러 나섰으나 예약문화로 인해 자리가 없다. 마켓에서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사들고 모텔에 와서 조촐하게 정상 등정 축하주를 나눴다. 7대륙의 마지막 목표인 빈슨매시프 등정을 기원하며...

느긋하게 자고 일어나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10시에 모텔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

며 주변 산책을 하고 12시가 되어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치지 않고 눈과 비가 반복되다 오후가 되니 굵은 빗방울로 변한다. 이 정도라면 정상 부근에는 폭설이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오후 내내 버스를 달려 캔버라의 노보텔 터미널에 도착해서 패스트푸드로 저녁을 먹고 다시 시드니행 버스에 오른다. 9시가 넘어서 시드니에 도착하니 다행스럽게 빗방울이 가늘어진다. 지도를 보고 걸어서 호텔을 찾아간다.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갔으면 하는 대원들의 표정이 읽혀진다. 호텔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나니 피곤이 말끔하게 가신다. 밤이 늦었지만 야경을 보러 나선다. 교민이 10만 명이라더니 곳곳에 한글 간판이 있고 우리말을 들을 수 있어 한국인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코리아타운의 한국식당에서 마감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다음 날은 시드니 관광을 했다. 전에 관광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없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호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데 이틀째 내린다. 이 비가 눈으로 내리면 등반을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운 좋게 등반을 마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떠올랐다. 등반을 실패해서 다시 와야 한다면 어찌했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밤을 한국식당에서 마무리하면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흥분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새벽 4시 30분. 전철로 시드니 공항으로 이동해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모든 것을 마친 편안함에 긴장이 풀리니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단잠에 빠져든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2014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호주 코시어스코)’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과 도움을 주신 허정 총동창회장님과 많은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16년 마지막 남은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 등반을 위해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남은 마지막을 위해...

김태중 부대장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부회장, 수의과대학 교수)



(산행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나원대원이 잘 기술하였기에 코시어스코 등정의 이야기보다 본 원정이 있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위주로 개인산행기를 적어본다)

2012년 8월 15일 전남대학교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가 5번째 대륙인 유럽의 최고봉 러시아연방 엘브루즈를 성공리에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였다. 해외원정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바로 다음해인 2013년 2월 아프리카 최고봉인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를 원정하여 등정하기에 이른다. 킬리만자로 등정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원정으로 인해 형제처럼 가까워진 엘브루즈 원정대 오성개 대장님과 나, 그리고 당시 행정을 맡았던 김영필 대원이 함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음 6번째 원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내 기억에 6번째 원정의 시작이었다.

목적지는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폰카자야 (칼스텐츠)였다. 원정을 위해 대원당 1,500만원 정도의 고액의 경비가 예상되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원정대는 애초 훈련대원부터 모집을 하고 이들의 훈련상황 및 여타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정대원을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훈련대원 모집을 시작으로 폰카자야 원정대가 그 태동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훈련대원은 오성개, 김영필, 김태중, 윤현식, 이나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히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수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이 있었다. 특히, 폰카자야의 마지막 정상부근에는 약 200여미터의 암벽지대가 있고 실제 약 50미터 정도의 암벽등반 루트가 있었기에 암벽훈련 및 체력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주로 월출산 시루봉, 사자봉 및 무등산 새인봉등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대원 선발에 대비하고 있었다.

당시 현지의 여행사 및 가이드와 연락총책을 맡은 나는 현지인 (파푸아섬의 원주민 출신 가이드)과 e-mail을 통해 연락을 취하며 원정일정 및 비용에 대해 수십차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원정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었다. 5월에는 폰카자야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강릉대 산악회

김영미씨를 초청하여 산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 차례의 회의 후 최종적으로 3명의 원정대원이 선발되었다. 오성개 대장님, 나, 그리고 이나원 대원... 전남대학교 산악회 재학생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재학생 후보 중 대통령배 산악대회 3연패라는 대단한 업적(?)을 가진 이나원 대원으로 모두가 동의를 했다. 거의 만장일치였다.

원정비용은 최소 4,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총동창회 및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원정을 추진해 갔다. 그러나 현지 가이드의 터무니없는 비용 선결재 요구 및 급작스런 비용의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의 내정불안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정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다. 2014년 6월, 풍각자야 원정은 취소되었다.

6번째 원정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소 실의에 빠진 상태였다. 2014년 6월 21일, 최희동 총동창산악회장님의 긴급제안으로 전 대원이 모여 회의를 했다. “풍각자야는 더 이상 원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6번째 원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안이 있다. 호주대륙 최고봉인 코시어스코로 원정 목표를 변경하면 된다. 6번째가 있어야 최종목표인 7번째인 남극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그날의 회의결과였다. 이제 시간이 없다. 서두르자...

원정단장님인 최희동 총동창회장님의 결정에 따라 원정이 다시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었다. 원정대는 단장님과 김영필 대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확정되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윤현식대원은 동행을 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대원도 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여행사를 통한 원정이 아닌 개별 원정이 이루어졌다. 호주에서 박사 후 과정 공부를 한 경험 때문에 사실 덤태기(^^)를 쓰게 되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다.

호주에서의 차량 및 숙박, 그리고 등정 제반사항은 본 보고서의 “행정”편에서 설명하겠다.

호주는 수차례 다녀온 곳이지만 최희동 단장님의 배려(?)로 처음으로 대한항공 직항노선을 타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항공료를 아끼는 목적으로 싱가포르항공이나 호주의 콰타스항공 등을 이용하여 동남아에서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한번 transit을 하는 노선을 타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으로, 그것도 직항으로 가게 되었다 ^^.

광주에서 출발하여 인천으로의 지루한 시간을 지나 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히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출발...

시드니 공항 도착 후 캔버라로 이동을 한다. 장거리버스를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 두었는데 어찌된 건지 호주답지(?) 않게 버스가 늦는다. 대원들은 나를 쳐다보며 혹시 일이 잘못되었는지 걱정을 한다. “이런.. --;”. 그간 그렇게 호주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한 번도 시간에 늦는 걸 경험하지 못한 나 역시 초조하다. 택시도 아니고 셔틀버스 (Greyhound Express)가 늦다니... 다

행히 5분 뒤 버스가 온다. 캔버라 도착 후 Canberra University 부근에서 점심을 먹고 중형택시 (Snow Alliance)를 예약한 한국대사관까지 간다. 픽업시간은 3시인데 또 “이런 --;”. 이번엔 예약택시가 늦는다. 10분가량 늦게 도착한 운전기사 왈,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한국대사관을 찾는 데 다른 곳이더란다. 실제로 한국대사관은 바로 옆 태국대사관과 맞은편 일본대사관에 비해 쪽팔릴 정도로 코딱지만한 규모다. 화가 나기보다는 부끄러웠다(혹시 호주에 있는 한국대사관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땅바닥에 머리박고 반성해라. 쪽팔려서 그 부근에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

캔버라를 떠나 트레드보마을까지는 길고 지루한 여행이다. 주변이 Snowy mountains(눈의 산맥)이라는데 나도 호주에서 처음으로 “눈”을 보았다. 진짜 눈이 있고 스키장이 있다. 겨울에도 눈 내리는 것도 한 번 본적이 없는데 눈이 쌓여 있어 개인적으로도 신기했다. 트레드보 도착 후 식사를 마치고 원정을 준비한다. 내일 날씨가 좋기만 바란다.

원정을 시작한지 3일째인 8월 16일이다.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렌탈하우스 앞에서 가이드 (Phillip Hannam)을 만나 설피 (Snowshoes, Salomon社)를 받고 등정을 시작한다. Eagle's nest를 지나 지루하고도 긴 산행을 한다. 등판각도가 크지 않아 완만하고 넓게 능선이 형성되어 있다. 역시 산은 말없이 가다보면 끝이 나온다. 현지시각 12시경 정상에 도착했다. 사실 이번 원정은 체력문제나 고산문제가 없는 터라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정상에서 다시 Eagle's nest로 내려와 간단히 자축연을 한다. 호주 현지인들은 정상까지 산악스키인 투어스키 (Telemark ski)를 메고 올라와 내려갈 때 스키로 하산을 하기도 한다.

본 지면을 빌어 감사함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다. 본 원정대는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용봉인 산악회 연합의 결정체이다. 지난 엘브루즈, 그리고 이번 코시어스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극의 빈슨 매시프도... 매번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동창회 선�후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나 원정때마다 큰 도움을 주시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허정회장님, 노동일 이사장님, 정인채 부회장님, 용현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전남대학교 본부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하고 싶다.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연구우수와 교육우수, 그리고 요즘 화두인 취업률향상등도 다 맞지만 제 목숨 걸고 오르는 극한도전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다음 원정은 7대륙 최고봉의 마지막 과제인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매시프 (Vinson Massif, 4,897m)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봉인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원정대가 성공적으로 발족하고 원정등반 역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분야별 보고



- 4-1. 행정
4-2. 회계
4-3. 준비물(장비 및 식량)

4-1. 행정

작성 : 부대장 김태중

1. 출국 전 준비사항

코시어스코는 호주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으로서는 일반 원정 대상국에 비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항공, 교통, 숙박등에 있어서 영국문화의 국가이기에 예약에 의해 잘 관리가 된다는 점이다. 특별히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예약문화에 익숙하거나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하면 큰 문제없이 원정대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경비가 고가이고 융통성(?)이 없는 단점은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원정을 잘 마무리 하리라 본다.

출국 전에는 먼저 항공권 예약을 한다. 항공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첨부하지 않는다. 호주 비자는 한국의 경우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사나 여행사에 연락하면 온라인 비자 (electronic travel authority VISA, ETA VISA)가 발부되니 별다른 신경은 안써도 된다.

인천공항 도착 전후에 호주달러를 환전하여 준비한다. 출국전에 별다른 준비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기에 별도로 자세히 기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다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도 호주에 처음가면 발음 때문에 당혹해 한다. 약간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2. 현지교통

현지교통에 대한 준비도 물론 출국 전에 완벽히 준비하여야 한다. 일단은 본 원정대의 원정코스대로 교통에 대한 예약이나 전반사항을 설명한다.

① 시드니공항에서 캔버라가기

(겨울 스키시즌에 한하여 시드니공항에서 트레드보로 가는 직항버스가 있긴 하다. 아침 7시경에 바로 출발하는 노선인데 우리와는 시간이 맞지 않았다. 겨울에 아침 일찍 서울에서 용평리조트로 가는 스키셔틀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버스는 Greyhound express를 이용하였다. (<http://www.greyhound.com.au/express/bookings>)

우리나라의 “Kobus: www.kobus.co.kr 처럼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하여 ticket을 구입한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험상 3시간 정도 운행하는 버스는 버스 뒷편에 화장실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휴게소 서비스는 기대하지 말기를…)

② 캔버라에서 트레드보 리조트가기

(참고로 트레드보로 가는 Greyhound는 없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지방도시간은 Greyhound가 운행하지만 리조트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이 용평리조트까지 가지는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일반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본 원정대의 경우는 특이하게 개별셔틀을 이용하였다. SUV 차량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것이었는데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았다. 차량은 호주 Snow Alliance사의 차량을 예약하였다(<http://www.snowalliance.com.au>).

③ 트레드보 리조트에서 캔버라 가기

겨울시즌이라 리조트에서 캔버라까지 나가는 버스가 있다. 우리는 Snoexpress를 이용하였다. www.snoexpress.com.au



한 가지 tip이 있다. 본 설명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용평 스키장, 보광휘닉스 등의 리조트에서 작은 셔틀들이 나와서 평창읍(?)정도에 있는 좀 큰곳에서 모여서 간다고 보면 된다. 즉, 작은 미니버스들 (왼쪽 그림, 약 15인승)이 각 리조트에서 나와 (트레드보 주위

의 Snowy mountains에 다른 스키장이 몇 개 있음) 모여서 큰 버스로 모여 캔버라로 간다. 물론 Snoexpress에 예약하면 하나의 ticket으로 연계되어 예약이 되어 있다. 그냥 한번 갈아타면 된다.

④ 캔버라에서 시드니가기

①의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단 예약할 때에 올 때는 공항이었지만 시드니로 갈 때는 목적지를 예약한 숙소나 다른 목적지 부근으로 하면 좋다. 우리는 Darling Harbour 부근에 숙소가 있어서 Sydney Central Station (시드니 중앙역)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였다.



캔버라시내지도: 그림 아래 동심원 중심이 국회의사당이고 그 주변들에 각국의 대사관들이 분포하고 있다

⑤ 택시이용하기

호주 대도시에는 당연히 택시가 있다. 좀 긴 거리라 생각되면 택시를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택시는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서 흔히 잡을수는 없지만 주요요점 (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잡으면 된다. 또는 콜택시를 불러도 된다. 콜택시를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라. 그냥 식당이나 숙소등에서 택시하나 불러주라고 하면 된다. 짐이 많으면 우리나라의 밴 택시와 같은 승합차 형태의 것도 있다. 택시비는 요일별, 시간별, 그리고 콜비(1\$) 차이가 난다.

⑥ 시드니에서 시드니 공항가기

비행기 출발시간이 이른 아침이라 전철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간다. 보통의 경우라면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도 되고 주변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워낙 이른시간이라서 전철을 이용하였다. 사실 전철이 가장 편하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전철노선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타야한다. 특히 공항까지는 몇 정거장 서지 않고 직행으로 가는 노선이 있다. 전철역사에 안내책자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

3. 숙소

① 트레드보 숙박하기

겨울스키시즌이 되면 용평이나 보광, 무주등 각지의 리조트는 회원권이 없으면 숙소가격이 폭등하게 마련이다.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비싸다. 하지만 리조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일반주거지가 없고 숙박시설도 리조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다. 트레드보리조트에 짐을 풀어야한다. 부근 숙박시설 예약은 여러 예약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

<http://www.wotif.com>

<http://www.expedia.com.au>

<http://www.hotelclub.com>

<http://www.agoda.com>

<http://www.booking.com>

여러곳을 적은 이유는 예약가능한 숙소찾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다행히 본 원정대는 <http://www.wotif.com>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하였다. 보통 스키를 즐기러 오기 때문에 1박 2일은 예약이 안되고 2박 3일로 가능하다.

② 시드니 숙박하기

시드니 숙박은 큰 문제가 없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호텔도 많고 가격도 공개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본 원정대는 <http://www.hotelclub.com>를 이용하여 Darling Harbour 부근에 머물렀다.

4. 등정

코시어스코 산을 등정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현지 가이드를 고용했다 (사실 눈보라만 없다면 가이드없이 등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안전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고용했다). 현지가이드는 리조트 공식사이트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www.thredbo.com.au

우리는 Snow Sports Booking Thredbo에서 booking을 하여 “Phillip Hannam”이라는 가이드와 동행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날씨와 옵션등을 체크하여 예약하면 된다. 등반로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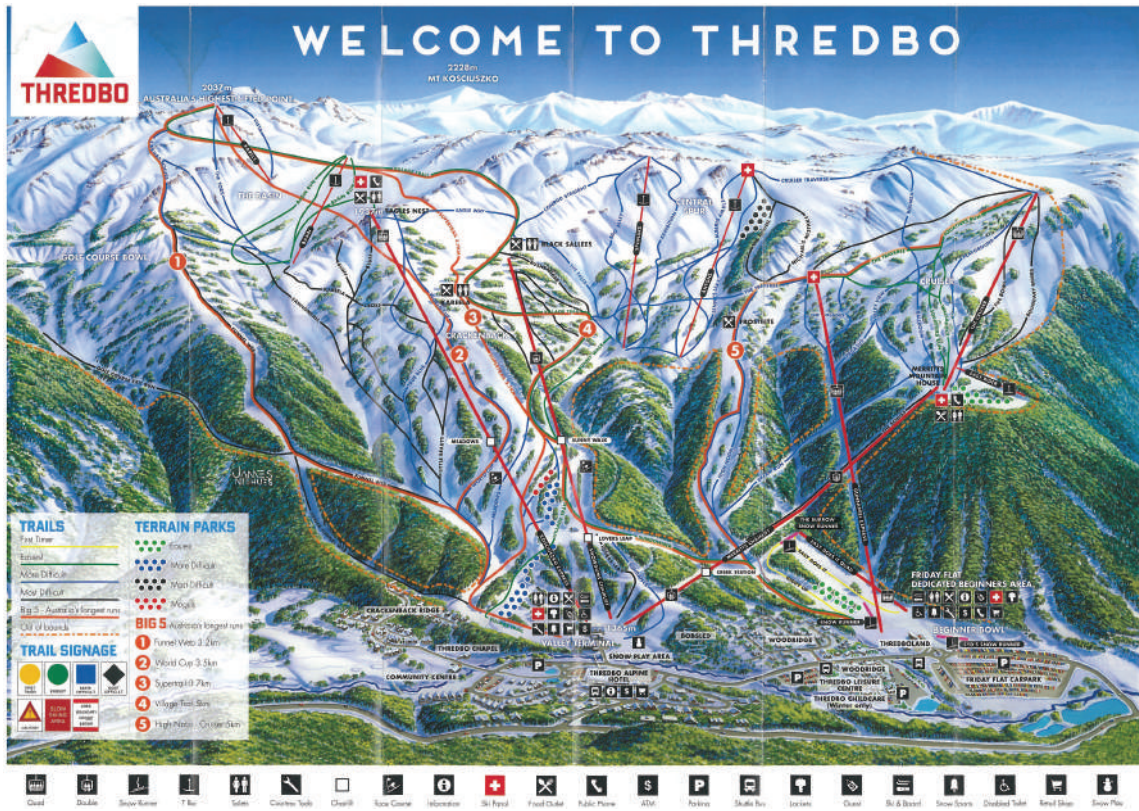


먼저 스키장(리조트)에서 리프트권을 구입하여 Eagle's nest로 가는 방법이 있다. 용평이나 평창등은 리프트 터미널부터 등반을 하는 코스가 없으니 무주리조트로 보면 리프트나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서 내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을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설천봉에 있는 설천봉레스토랑을 Eagle's nest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인데 무주리조트로 보면 삼공리-백련사를 거쳐 향적봉으로 가는 코스로 보면 된다.

왼쪽 그림을 보면 하얀 직선은 리프트를 나타내고 우리가 올라간 것은 파란색 Merritts Nature Track이다. 이것 말고도 여름시즌이면 다른 길로도 올라 갈 수 있다고 한다.

Merritts Nature Track 끝에 Eagle's nest restaurant이 있다. 여기서 설피를 착용하고 Mt. Kosciuszko Track을 따라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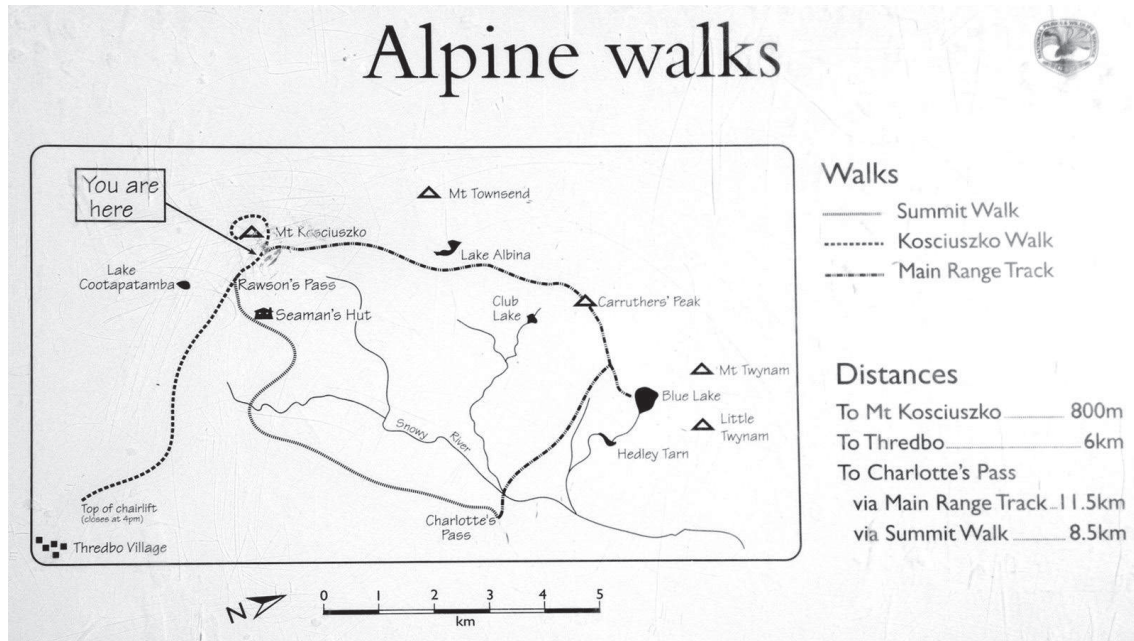


트레드보리조트 슬로프 및 리프트 안내문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등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완만하게 Rawson Pass를 지나 약간 급경사의 마지막 능선을 오르면 정상이다.



Rawson Pass를 지날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위 그림 및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owy Mountains에는 리조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Charlotte Pass를 통해서 다른 리조트로 갈 수 있다.





코시어스코 국립공원 지도

4-2. 회계

작성 : 부대장 김태중

1. 수입-지출 내역표

수입		지출	
대원 훈련비납부	640,000	훈련비	361,690
지원 및 찬조금	19,550,000	원정비	19,828,310
잔액: 0			

2. 수입내역(수입 날짜순으로 기입함)

연번	내역		금액	비고
1	대원 훈련비납부		640,000	
2	김길봉 권경희	전남대OB산악회	200,000	
3	이연익	전남대서울동창회 회장	1,000,000	
4	허 정	광주에덴병원 원장, 전남대총동창회 회장	10,000,000	
5	이명숙	전남대OB산악회	100,000	
6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 대표, 전남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	1,000,000	
7	용현희	(전남대총동창회 원로모임)	2,000,000	
8	임도균	전남대OB산악회 총무	100,000	
9	김경선	살레시오중학교, 오성개 부부	100,000	
10	이정현	순천대산악회,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이사	50,000	
11	정우연	송원대산악회,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전무이사	100,000	
12	정득채	서영대산악회,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수석부회장	100,000	
13	박향식	남해관광 대표, 전남대OB산악회	100,000	
14	신현이	광주산악연맹 회장	100,000	
15	송덕환	광주산악연맹 사무차장	50,000	

연번	내역		금액	비고
16	박헌주	전남대OB산악회 부회장	200,000	
17	윤현식	전남대의대산악회	100,000	
18	노동일	민코코리아 대표, 전남대총동창회 이사장	2,000,000	
19	김훈봉	광주산악연맹 고문, 전남대총동창산악회 명예회장	200,000	
20	송희태	전남대OB산악회	100,000	
21	김용욱	전남대OB산악회	50,000	
22	김재률	전남대교수산악회	100,000	
23	광주은행		1,000,000	
24	이연근	전남대OB산악회 수석부회장	200,000	
25	이은수	전남대OB산악회 운영위원장	100,000	
26	김부용	전남대OB산악회	100,000	
27	설낙순	전남대병원산악회 총무	100,000	
28	이광복	전남대OB산악회	100,000	
29	장 희	전남대OB산악회 회장	100,000	
30	김경자	조선대산악회,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	100,000	
총 액			20,190,000	

3. 지출내역

연번	내역		금액	비고
1	훈련비		798,690	
2	공동장비구입비 (Cheater stick)		120,000	
3	약제구입비		99,050	
4	발대식 및 준비비		369,100	
5	항공권 및 렌트비		9,127,915	
6	항공수수료		300,000	
7	현지원정비 (차량, 숙박, 식비 등)		6,480,950	
8	사진인화비		902,400	
9	보고서 발간비		1,991,895	
총 액			20,190,000	

도움을 주신 감사한 분들

연번	내역	금액	비고
1	발대식 화환	광주산악연맹 신현이 회장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김경자 회장 조선대학교총동창회 해병대 335기(오성개대장)동기회 전남대학교OB산악회	각 10만원 상당
2	1차훈련 식사찬조	전남대의대산악회 윤현식	20만원 상당
3	1차훈련 식사찬조	부대장 김태중	10만원 상당
4	강릉대 김영미초청 식사찬조	부대장 김태중	20만원 상당
5	대원1차 임시회의 식사찬조	부대장 김태중	20만원 상당
6	대원2차 임시회의 식사찬조	부대장 김태중	20만원 상당
7	케블라로프 (60m)	전남대OB산악회 백두인, 박현주 전남대의대산악회 윤현식	50만원 상당
8	전남대학교 출판부	발대식 초대장 인쇄지원	50만원 상당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4-3. 준비물(장비 및 식량)

작성 : 김영필

1. 개인 준비물(장비)



출국 전 최종장비점검 - 반드시 무게를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최종 장비점검을 하였다. 겨울 등반임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대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출입국시, 현지 도시 체류시, 등반시 필요한 준비물로 분류하였다.

항공수화물의 개인당 제한무게가 20kg이므로 개인짐은 무게는 15kg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공동 장비를 포함하여 18~19kg 정도로 맞추었다.

현지 도시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모든 짐은 65리터급 이상의 대형배낭으로 일원화하였고, 여권과 지갑 등은 별도의 슬더백에 각자 휴대하였다.

등반 당일에는 불필요한 짐은 숙소에서 보관하고 무게를 줄여 산행하였다.

〈개인 준비물(장비) 목록표〉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출입국 복장	원정대 단복		1	개	
	긴바지(반바지)		1	개	
	샌달(운동화)		1	개	
	숄더백	여권소지	1	개	
	대형배낭	65리터 이상	1	개	
현지도시 복장	챙넓은 모자		1	개	
	긴팔상의		1	개	
	긴바지		1	개	
	파일자켓		1	개	
등반복장	보온모자		1	개	
	선글라스		1	개	
	버프	자외선차단, 보온	1	개	
	짚티 상의	겨울용	1	개	
	방수자켓		1	개	
	겨울등산바지		1	개	
	스패츠		1	개	
	일반등산화	가죽 권장	1	켤레	
	아이젠	워킹용 6발	1	쌍	
	장갑	얇은 파일장갑	1	켤레	
	카메라		1	개	
등반시 배낭 속	우모복상의		1	개	
	장갑	두꺼운 보온장갑	1	켤레	
	보온물병		1	개	
	헤드랜턴	건전지포함	1	개	
기타 개인 준비물	속옷		다수	개	
	양말		다수	개	
	세면도구	치약, 치솔, 수건 등	1	세트	
	기록구	볼펜, 수첩 등	1	세트	

2. 공동 준비물(장비, 식량)

〈공동 준비물(장비) 목록표〉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운행	설피	노르딕 형태	5	켈레	현지 임대
	비상용 로프	PP로프 10mm	30	m	김영필
식량	행동식	빵류	다수	개	국내 구입
	간식	과자류, 견과류, 포류 등	다수	개	국내 구입
	반찬류	개인별로 1~2가지	다수	개	개인별 준비
	누룽지	3kg	2	봉	김용욱 찬조
	소주	0.8리터, PET	10	병	국내 구입
의료	의약품세트	외과적, 내과적 약품 등	1	세트	김태중

① 설피

적설기 산행임을 감안하여 설피를 현지 상가에서 등반 직전에 임대하였다.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노르딕 스키처럼 뒷축이 들리는 구조여서 눈 위를 걷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금속 재질의 발톱이 부착되어 있어서 경사진 설상에서도 충분히 제동력을 발휘하였다. 겨울 등반 시에는 꼭 필요하다.

우리 원정대의 등반 시 크러스트(crust, 쌓인 눈이 딱딱하게 언 표층)가 잘 형성되어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아 조금씩 발이 빠지는 구간이 혼재하였다. 신고 벗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피를 착용하였다.

② 비상용 로프

악천후 일 경우 안자일렌이나 구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상용 PP로프 30m 정도를 휴대하고 등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③ 아이젠

워킹용 6발 또는 4발 아이젠으로 각자 준비하였다. 또 설벽 또는 빙벽이 형성되는 악천후를 고려하여 설상용 12발 아이젠을 3개 휴대하고 등반하였다.

날씨가 좋고 설질도 양호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④ 깃발

정상 등정 시 사진촬영에 사용할 깃발을 준비하였다. 우리 원정대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관련된 단체나 회사 등의 깃발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로 약45cm, 세로 약35cm 정도의 크기로 총 30여장을 가지고 가서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깃발 촬영에만 30여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⑤ 누룽지 조리법

원정 동안 대원들이 입맛을 잃지 않도록 특별 식량으로 누룽지를 준비하였다. 김용욱(OB산악회, 86학번) 회원이 찬조 해주었다.

등반의 기점이 되는 트레드보의 뿔지에는 조리 시설이 없어서 누룽지를 제대로 끓일 수 없었다. 뿔지의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준비해간 보온병에 붓고 적당량의 누룽지를 넣은 뒤 뚜껑을 닫아두고 몇 분 지나면 의외로 잘 퍼져서 맛난 누룽지와 송늑을 먹을 수 있었다.



건조 누룽지



편집후기

어렸을 때부터 산은 내게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갔다 올 때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항상 좋은 추억만 주었기에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망설이지 않고 산악회에 입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

올해 초, 7대륙 최고봉 중 6번째인 칼스텐즈 훈련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꽤 한동안 가슴이 뛰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을 잘 알기에 뛰는 가슴을 잡고 훈련대원 신청을 했다. 선배님들과 훈련도 여러 번 같이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되면서 어렵기만 했던 선배님들이 조금씩 편해졌고, 그 후로 내 가슴은 정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7월에, 처음 계획했던 칼스텐즈를 현지사정 악화로 못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대로 원정을 못 가게 될까봐 한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았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호주대륙이 있기에 대체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등정하는 날의 날씨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이었고, 대원들은 말할 것 없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또한 넓은 호주대륙을 다녀오면서 내 마음마저도 넓어진 듯한 기분이다.

이제 용봉인들의 세계 7대륙 최고봉 도전에는 마지막, 남극 빈슨매시프만이 남았다. 이 자리를 빌려 빈슨매시프도 무사히 성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정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처음 나가보는 해외에, 그것도 원정이라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런 두려움마저 잊게 할 만큼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시고 매번 잘 챙겨주신 최희동 단장님, 오성개 대장님, 김태중 부대장님, 그리고 김영필 대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호주대륙 최고봉을 성공리에 다녀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허정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담당 이나원